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이혜령**

차례

1. 가정법과거완료, 해방기 서사의 時制
2. 돌아온 남자들 : 식민기억의 기율
3. 협력과 일상 사이의 식민기억과 여성 표상
4. 탈식민의 남성성 회복, 그 곤혹에 대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기 텍스트에 나타난 식민기억을 서사화하는 특정한 방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했다. 이 시기 텍스트는 식민지 시기 때는 그 자체로 서술될 수 없었던 식민지 경험을 서사화하고 있는데, 특히 징용이나 학병에 끌려가거나 감옥에 수감되었던 남자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하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나 식민지 감옥에 수감되었던 혁명운동가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해외에서 민족해방 운동에 가담한 정치적 망명자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서사에서, 해방은 식민지 억압에 의해 수난을 겪었던 남자들이 조국과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의미화되며, 식민화의 메타포인 여성 수난은 남성수난의 부차적 산물이며 후자가 더 선차적인 것임이 암시된다. 요컨대, 식민지 시대 때는 서술과 재현의 권리를 얻지 못했던 텍스트의 주체들과 대상영역이 해방기 텍스트에서 전면화되는데, 이때 고통의 양은 식민기억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3)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원

-텍스트의 기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율에는 식민지 억압에 의해 죽은 남자들, 돌아온 남자들, 돌아와야 할 남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식민지-텍스트의 기율은 식민지 일상성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듦으로써, 식민지-텍스트의 또 다른 버전을 산출하게 된다. 즉, 처자를 위해서 친일행위를 했어야만 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의 남성수난을 진술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연애 등의 남녀관계를 불가능했거나 불행한 것으로 상징화함으로써 일상 또한 고통스러웠다는 서사를 제시한다. 그러나 정비석의 『고원』과 같은 작품이 증언하듯이, 바로 대일협력 기억과의 불가피한 조우는 남성수난으로서의 식민지 경험은 민족수난사로 상징화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이는 해방 직후 남성성의 회복이 그리 간단치 않았음을 말해준다.

핵심어 : 식민지, 식민지 일상성, 남성 수난사, 여성 수난사, 친일

1. 가정법과거완료, 해방기 서사의 時制

김남천의 소설 『1945년 8.15』¹⁾의 주인공 김지원이 반복적으로 꾸는 ‘꿈’은 해방기 소설, 더 나아가 이 시기 식민지 기억의 서술에 내재한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해방 전 학병반대 격문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도중 해방을 맞은 김 지원은 다음과 같은 꿈을 꾸다. 감방에서 만나 자신의 사상적 스승이 된 장사우 씨가 밤중에 토혈을 하며 기침을 해대자 김 지원이 패퐁(報知機)을 치고, 목을 터지라고 간수들을 불러대는 꿈이다. “문을 흔들며 사람이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간호부가 와

1) 『1945년 8·15』는 해방 후 최초의 장편소설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1945년 10월 5일 창간된 『자유신문』의 창간 기념으로 기획, 1945년 10월 15일부터 1946년 6월 28일까지 165회로 연재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한 채 중단된 미완의 장편소설이다. 이 글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인용시에는 최근 출간된 단행본 『1945년 8.15』(작가들, 2007)을 사용하며, 본문 괄호안에 쪽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서 그를 흔들며 드디어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꿈은 물론 사실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감방 안에 있는 동무와 복도에 서 있는 간수와의 언쟁이나, 그것으로 하여 비로소 자던 눈이 떠지고 또 토혈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간수를 부르기 위해서 고향을 지르고 감방 문을 흔든 것은 꿈의 조작이었다.**”(84쪽, 강조-인용자) 장사우는 “잔학한 고문과 혹독한 문초”로 인해 걸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폐결핵으로 격리 수용된 지 20일만에 죽고만다. 이 꿈은 “과거에 그랬더라면”이라는 소망의 내용을 현재의 꿈속에서나마 성취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랬었다면”, “그랬어야 했을텐데”라는 원망이 담겨져 있다. 과거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꿈은 가정법과거완료의 서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사우는 “가정과 가족을 버린 지 15년, 그동안 두 차례나 망명하면서도 우리의 전장은 국내에 있고 공장에 있다는 굳은 신념 밑에 갖은 곤란을 극복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이 년 가까이를 영등포 공장지대에 숨어서 군수공장을 중심으로 전쟁반대와 사보타주(怠業)를 조직하다 발각되어 일당 83인과 함께 검거가 되어 감옥에 들어오게 된”(78쪽) 사람으로 서술된다. 그에게 감화받고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된 김지원이 해방 후 걷게 되는 길은 바로 장사우-죽은 자가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이다. 김지원은 38선 이북의 지주인 아버지가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과 수모를 역사의 당연한 심문(審問)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족, 그리고 자신의 계급적 기반으로부터 절연함은 물론 의학사라는 꽤 관찮은 사회적 지위조차 버리고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이처럼, 가정법과거완료의 원망은 ‘되어 있어야 할’ 미래완료적인 정체성 기획에 근원적인 동인이 된다. 물론 후자에 의해 가정법과거완료의 원망은 구성되고 고착되기도 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지만, 좌우익 이념에 따른 국민국가의 건설 기획으로 수렴되기 쉬운 미래완료적인 정체성의 문제보다는 가정법 과거완료의 원망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민지 텍스

트'는 좀처럼 보여준 바 없는 식민경험이자 해방기에서야 등장하게 된 식민기억의 질료에 입각해서 구성된 것이기에, 그 질료들이 무엇인지 또 왜 선택되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러한 원망과 정체성 서사의 기본적인 재료인 학병 반대 격문사건이라든가, 일본 식민지배의 폭압을 상징하는 서대문형무소의 살풍경한 상황 등에 대해 쓴다는 것 자체가 '해방'에 의해 가능해진 혹은 구성된 소원성취²⁾라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형 오기만의 삶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겪었던 역경을 소설화하여 담아낸 『사슬이 풀린 뒤』의 모두에서 저자 오기영은 이 글을 남편과 두 아들의 감옥살이를 겪고, 그중 큰 아들을 기어코 여의어야 했던 가엾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다고 밝히고 있다. “늘 가엾은 어머니라고 생각하였으나 달리 위로해드릴 길이 없는 채 지나간 아픔을 자유로이 회고할 수 있는 기회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이 『사슬이 풀린 뒤』다.”³⁾(강조-인용자) 해방이 ‘지나간 아픔을 자유로이 회고할 수 있는 기회’로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책의 해방’⁴⁾이라 일컬을 만한 해방기 책의 문화사에 대해서

2) 해방에 의해 가능해진 소원성취는 비단 텍스트의 영역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해방은 금지되었던 일상적인 삶의 관습을 관습을 초과한 형태로 회복시키기도 했다. 가령, 김동리의 『未遂』(1946)라는 소설에 제시된 해방 후 풍속 중 하나는 “이제 조선 독립이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몇해 왜놈의 전쟁판에 하는수 없이 대강 이리저리 치러 넘겨오던 목은 제사들까지도 들쳐내서, 산(生)사람들의 기쁨을 죽은 혼령들에게도 알린다고 하여 아주 동리가 떠들썩 하도록 야단스리들 지내는” 것이었다.

3) 오기영, 『사슬이 풀린 뒤』, 『신천지』 제1권 2호, 1946.3, 149쪽. 오기영의 『사슬이 풀린 뒤』(성각사, 1948.9)는 『신천지』에 4회 연재 된 후, 개작되어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한기형은 이 개작을 통해 인물의 뚜렷한 성격화와 서사구조의 정제를 통한 소설적 구체화를 시도했는데, 이는 한 가족의 항일운동 경험담을 단순한 가족사의 영역을 넘어 민족 전체의 보편적 경험의 기록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평가한다. 한기형, 『해방 직후의 수기문학』, 『상허학보』 제9집, 상허학회, 2002

4) 이종연, 『책, 사슬에서 풀리다-해방기 책의 문화사』, 혜안, 2005, 13~43쪽.

만이 아니라 식민기억의 서사의 주요한 플롯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어학회사건(1942)으로 압수당해 유실되었다가 해방 후 극적으로 찾아낸 『조선말큰사전』의 원고나 이른바 암흑기에 쓰여졌다고 알려진 조지훈·박목월·박두진의 합동 시집 『청록집』의 간행이나, 후쿠오카의 감옥에서 죽어서야 돌아온 식민지 조선의 청년 운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간행. 해방이 되어서야 극적으로 발견되었다거나, 써놓고 깊은 곳에 감춰뒀다가 해방과 함께 원고가 빛을 보았다는 사연은, 해방기의 가장 감동스러운 내러티브, 즉 죽어서야 당도한 자들, 해방이 되고 나서야 돌아온 자들이라는 내러티브와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내러티브의 주인공들은 이미 확인했듯이 『1945년 8.15』의 장사우나 김지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옥사한 이윤재 등이며, 김남천 소설의 여주인공 문경의 아버지처럼, 해방이 되어서야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해외 망명가이다. 한편 이들은 식민지기에 산출된 텍스트를 매끈하지 않은 요철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기형이 던진 식민지 텍스트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⁵⁾

한기형은 식민지권력은 식민지인들의 사상과 감정, 문화를 파악하고 주조하기 위해서라도 식민지민을 출판물을 통한 근대 지적 재산의 소유권자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보장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텍스트 주체의 법적 지위는 검열장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조정되었기에 누구도 전일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법적 지위를 존속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검열이 상징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의 텍스트는 집중적인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말하는 검열의 상징화란, “검열해야 할 텍스트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 텍스트를 모두 장악할 수 없음에도 검열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

5) 한기형, 『식민지 검열장의 성격과 근대 텍스트』, 『민족문화사연구』 제34호, 민족문화사학회, 2007.8.

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해된다. 식민권력과 긴장도가 높은 영역의 텍스트는 합법적인 간행을 어렵게 하는 대신 그 밖의 분야에 대한 검열의 집중도는 약화시켰다”⁶⁾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책의 해방’, ‘출판문화의 혁명기’이라 불려질 만한 해방기 텍스트의 양상은 ‘식민지 텍스트’와의 연속과 단절, 변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 예로 식민권력의 검열의 상징화 과정에서 주된 대상이 된 텍스트 주체 및 표현의 형식들이 일제히 전면화되는 양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남천의 『1945년 8.15』에서 문경은 8.15 이후 문서, 격문, 뼈라, 전단 등의 홍수사태에 대해 “저 뼈라나 격문이 모두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일본경찰이 잡아 가둘 때엔 한 장도 보기 힘들던 격문이 마음대로 박아돌린다는 통에 저토록 무질서하게 홍수처럼 쏟아져나온 게 아닐 것이냐”라고 회의하더라도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죽이나 그리웠던 자유요 언론이요 출판물이나. 막혔던 붓물이 터지듯이 모든 언론이 의견이 울분이 분격한 물결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태준의 『해방전후』(1946)의 한 장면 또한 인상적이다. 해방 직후 좌익 대중단체 주최의 데모 행렬이 종로를 지날 때 좌익문인들이 중심이라고는 하나 통일전선을 표방한 조선문화건설중앙협회(문협)의 상당한 책임자 하나가 연합국 입성 환영 때 쓸 연합국기들 중 소련 것만 끄르더니 한아름 안고 가 회관의 사층 창문밖으로 행렬 위에 뿌려 거리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을 ‘문협’의 강령과 어긋난 극좌주의로 여긴 ‘현’이 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다. 며칠 후 그 문인이 찾아와 ‘현’에게 자신의 경솔함을 시인하면서 “현형! 내 솔직한 고백이요. 적색 데모란 우리가 얼마나 두고 몽매간에 그리던 환상이리까?”라고 말한다. 이처럼 해방기 텍스트를 포함하여 갖가지 의사표현의 양상이 ‘분출’ 내지 ‘과잉’으로 나

6) 한기형, 위의 글, 438쪽.

타난 것에 대해 당시의 감각으로도 식민권력의 억압에 의해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보게 되는 소원성취의 행위로 인식되었으며 ‘사회주의’처럼 억압의 강도가 컸던 것일수록 분출과 과잉의 양상 또한 강렬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이는 자유의 표상이기도 했지만 극단적인 언론통제 정책을 썼던 식민지 말기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기에 일제의 억압을 환기시키는 표상 기능을 했던 것이다.⁷⁾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의자나 앞에서 언급한 해방기에 가장 감동스러운 내러티브의 주인공들은 식민지 사회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체계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던 이들로서 텍스트 주체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존재들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합법적 미디어의 장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식민지 사회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로 그 재현이 제한된 존재이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실존 자체가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와 격리된, 차단된 곳에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받던 신체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숨어 있는 자들이 해방 직후 가장 권위 있는 텍스트 주체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광수는 『문장독본』을 해방 후에 다시 간행하면서 자서(自序)에 옥사한 이운재를 언급해야 했으며, 이태준은 『문장강화』를 증정(增訂)하면서 이광수의 글을 뺀 곳에 「재외혁명동지환영문(在外革命同志歡迎文)」이라는 자신의 글을 실어야 했다.⁸⁾

7) 한편 1940~1946년까지 주 일본 서울 주재 영사관에 근무했던 파나 이사악꼬브나 샤브쉬나는 해방 직후 지방 곳곳에서 집회와 즉석에 이루어진 회합의 자연발생성, 그리고 거의 모든 세대와 직업층이 연단에 서서 발언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강요된 침묵과 폐쇄성, 억눌림을 깨고 자기의 의견을 모두 말한다. 바로 여기에서 극도의 대중 ‘집회 민주주의’가 진실로 비상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파나 이사악꼬브나 샤브쉬나, 김명호 옮김, 『1945년 남한에서』, 한울, 1996, 78쪽.

8) 이혜령, 「이태준 『문장강화』의 해방전/후」,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412~413쪽 참조.

그렇지 않다면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1949)의 주인공처럼 범상한 인간이, 제 식솔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할 수밖에 없었던 용렬한 지 아버지는 너무도 두려웠노라고 변명해야 했다. 죽었으나 부활한 또는 돌아온, 돌아와야 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하고, 쓰고,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식민기억-텍스트를 통어하는 일종의 기율(discipline)로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해방 이후 친일파가 누군인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거나 재외척 명투사나 사회주의자의 생애를 이야기함으로써 식민기억을 구성하고, 좌익세력이 언론과 집회, 결사 등을 통해 집단적 자기표현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군정의 언론정책은 초기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듯하지만 그것은 점령정책의 기본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였으며 점차 좌익세력의 언론활동을 봉쇄하는 통제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한다.⁹⁾ 단독정부의 수립과 여순반란사건, 그 결과 미군정의 점령과 함께 폐지되었던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부활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사상 통제 시스템, 그 이데올로기적 표현인 반공주의와 그것을 고착화시킨 한국전쟁은 식민기억, 그것과 짝을 이루는 해방 직후의 기억조차 통어하는 강력한 기율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식민지적 억압에 의해 죽은 자도, 고통받았던 자라 하더라도 ‘아무나’ 식민기억-텍스트의 주인공이나 서술주체가 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¹⁰⁾ 길지 않았던 시간인 ‘해방기’는

9) 1945년 9월 7일 공포된 맥아더 포고 2호는 언론통제의 포괄적인 근거가 되었으며, 용지부족을 이유로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였으며, 1907년 공포된 신문지법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는 명분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등 법률적인 차원에서부터 언론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등이 보여주듯이, 좌익세력의 언론활동을 적극적으 봉쇄하고자 했다. 박용규,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참조.

단정의 수립, 특히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에는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식민기억-텍스트가 생성된 가능성의 시간이었다. 이 글은 해방기 식민기억-텍스트의 기율과 젠더에 논의하고자 한다. 비중 있게 논의될 작품은 김남천의 『1945년 8.15』 외에도 정비석의 『故苑』(1946)이다. 이 두 작가는 그 이념적 지향이 전혀 다른 작가이지만, 이 두 작품은 이 시기 식민기억을 통어하던 기율의 강력한 자장안에서 형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식민기억 작업이 부딪히게 되는 곤혹을 공히 식민지 일상성과 결부된 남녀관계의 메타포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식민지 경험을 서술하거나 역사화하는 방식의 징후들을 예견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¹¹⁾

2. 돌아온 남자들 : 식민기억의 기율

앞에서 말한 식민기억-텍스트를 통어하던 기율이 젠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답변은 이 물음을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식민지 감옥에서 갇혀 있거나 죽은 자는 누구인가(누구라고 이야기되었

10) 예컨대, 남한의 이후 문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민기억-텍스트의 서술주체가 최인훈과 박완서처럼 이북 출신으로 식민지 시대에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보낸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1) 후자는 이 글에서 길게 논의될 수 없기에 여기에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인문학계를 불지켰던 식민지 근대성을 둘러싼 논의는 식민지 억압과 수탈의 경험과 식민지 일상성, 협력과 저항을 함께 다룬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두 작품은 곤혹스럽더라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서술했어야 했던 당대의 멘탈리티를 보여준다. 어떤 형태로라도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살았던가를 서술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을 분석하면서 논의하겠지만, 이것은 해방기에는 국외/국내가 식민기억과 관련하여서는 어디에서 식민지 시기를 보냈느냐가 이주나 망명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넘어서 도덕화되는 양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남북한의 단정의 수반이었던 이승만과 김일성은 모두 국외 활동을 했다는 점은 이 대목에서도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는가), 해방이 되어서 한반도로 돌아온 자는 누구인가 (누구라고 이야기 되었는데)이다. 『사슬이 풀린 뒤』에서 태어난 둘째 손주가 여자애라고 서운해 하는 어머니에게 오기영은 “사내는 나서 뭘 해요 또 감옥이나 가야할 걸.”¹²⁾이라고 말한다. 끝내 큰아들을 잃은 그의 어머니는 아내를 여윈 “홀아비 아들(오기영-인용자)에게 정용이 나올까봐, 아직 장가도 못가본 막내아들이 병정으로 뽑힐까봐 하루같이 조바심ियो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으신 격이었다.”¹³⁾(강조-인용자)고 회고한다.

해방 후 만주나 일본 등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한국인들을 다룬 소설을 ‘귀환서사’(the repatriate narratives)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주목할 만한 연구들은 지리적 귀환이 곧 내셔널리티의 회복이 되는 서사의 성격을 통해, 이 귀환서사가 해방 후 국민국가의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제였음을 보여주었다.¹⁴⁾ 이 귀환서사의 주인공은 대개 남성들이며, 여성들의 귀환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여성들의 귀환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저 어떤 남자의 아내로서 귀환하기 때문에 서사상 뚜렷한 형상을 부여받지는 못한다. 다만 아주 드물게 여성의 귀환이 소설의 주된 서사를 구성할 경우, 그녀는 일본에서 몸을 팔았던 과거를 지니고 있는, 섹슈얼리티 상으로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특징을 띤다.¹⁵⁾ 식민기역의 서사 속에서는

12) 오기영, 『사슬이 풀린 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109쪽.

13) 위의 책, 179쪽.

14) 정재석,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 “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40집, 한국비교문학회, 2006; 오태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한국문학연구』 제32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최지현, 『학병(學兵)의 기억과 국가 1940년대 학병의 좌담회와 수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2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최지현의 글은 소설을 중심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해방이 되어 돌아온 학병들이 자신들의 귀환서사를 어떻게 민족서사로 창출했는가를 보여준다.

15) 이에 주목하여 오태영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남성들의 귀환과 여성들의

남편과 아버지 등 가부장의 보호를 동반하지 못한 채 돌아오는 여성들의 귀환만이 그것도 아주 드물게 눈에 떨 뿐이다. 남성들의 부재와 훼손이 곧 여성성이 되는 것에 여성화된 식민지의 표상이 성립되는 것이며, 탈식민의 젠더 표상은 부재하는 남성성을 회복하거나 훼손된 남성성을 복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조금 과장하자면, 귀환서사는 조선이라는 공간에서는 부재한 남성성을 다시금 충원하는 가장 직접적인 서사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⁶⁾

요컨대,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피식민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남자들이 감옥과 징용과 학병으로 끌려가거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하고, 남자들이 없는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이 어렵사리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방기의 텍스트는 말하며, 그러한 점에서 여성수난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식민 이후 특히 전쟁과 분단 이후 남북한이 공히 자신을 피해자 내지 수난자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 경험을 ‘여성수난사’라는 형태로 호출하여 민족주의 서사의 구성하던 것¹⁷⁾과도 관련되어

귀환서사를 비교하여, 전자가 지리적 귀환=민족됨의 증명인 반면, 오염된 신체의 여성은 귀환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됨을 심문하게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오태영, 위의 논문, 528~536쪽 참조.

- 16) 『1945년 8.15』에서는 연계가 중단되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흐릿하게 처리되었지만, 이승만과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돌아온 남자들 중에서 돌아온 국부(國父) 만큼-물론 이 국부의 이미지는 더 나중에 구성된 것이지만-이나 여성화된 식민지 표상을 강화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10년~1945년의 한국을 일본으로 식민지로 규정하지 않고 『백범일지』의 김구처럼 강점이나 점령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탈출한 혹은 추방된 측으로부터의 규정이라 해야 할 것이며, 이 탈출과 추방을 우위에 두는 역사의식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개념이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인 황호덕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황호덕, 『점령과 식민, 『백범일지』로 본 동아시아의 근대-내부와 외부, 비교식민지(문학) 연구의 가능성』, 『비교문학』 제43집, 한국비교문학회, 2007.10, 155쪽 참조.)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보자면, 이승만과 김구의 ‘환국’처럼 가장 정치적이고도 잘 알려진 귀환서사는 탈식민을 위한 남성성은 조선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충원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있음을 물론이다. 그런데 해방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러한 돌아온, 돌아와야 할 남성들의 전면화는 시간적으로 더 선차적인 남성수난을 강조하고 여성수난은 그것에 의해 파생되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역설하는 듯하다. 『1945년 8.15』에서 여주인공 문경네는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의 망명으로 어머니가 간호부로 대신 생계를 꾸려야 하고 문경도 교원이 되어 집안 살림에 보태야 하는 등 어려운 삶을 살았다.¹⁸⁾ 그뿐만 아니라 문경네 집안일을 거드는 순이 어멈은, 남편이 북해도로 징용을 갔으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해방 후에도 소식을 모른 채이다. 또 김지원과 함께 학병반대 격문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해방이 되기 전 시체가 되어 옥중에서 나온 이창현의 어머니는 해방 후에 더 깊어진 한을 갖게 된다. 여성들의 수난은 이처럼 식민지배와 그 정책이 그 원인이 된 가정 내 남성들의 부재에 의해 초래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끈고한 삶 자체가 비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 오빠의 자리를 언급하고서야 서술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남성들의 수난을 민족수난사로 상징화시킬 수 없었던 곤경에서 바로 식민기억-텍스트의 기울기가 작동한다.

여기서 소설 『1945년 8.15』에서 식민지시기 투옥과 징용, 학병, 망명 등의 남성수난을 겪지 않은 가부장의 가족은 대흥콘체른 회장 이신국

17)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12; 권명아, 『여성·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제10집, 상허학회, 2003.2 권명아는 한국에서 수난사 이야기는 위기 담론과 쌍을 이루어 1910년대, 1930년대, 1950-60년대, 1990년대에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점, 이 각각의 역사적 층위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식민 이후의 여성수난사 이야기의 정착과정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18) 그녀의 아버지 박일산은 1919년 3.1운동 때 학생대 시위행렬을 지휘하여 3년의 징역을 살았으며 그후로도 국외에 있는 단체와 연락하면서 끊임 없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5년에 망명한 것으로 제시된다. 뜨문뜨문 헛소문이라도 끊긴 지 10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직후에 박일산이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환국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지만, 소설 『1945년 8.15』는 박일산이 환국하기 전에 공교롭게도 연재가 중단된다.

씨 일가뿐이라는 것을 눈여겨 보고 싶다. 이신국 씨 일가는 해방 전에 쓰여진 김남천의 소설 『사랑의 수족관』(1940)의 인물구성을 이어받고 있다.¹⁹⁾ 『사랑의 수족관』의 이신국 씨 일가는 『1945년 8.15』에 와서는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들은 매관적 부르조아로서 해방기 김남천의 정치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주층과 함께 타도되어야 할 민족 내부의 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²⁰⁾ 탈식민의 격동기에 역사적 주체는 누구인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자는 누구인지를 명백화하는 것이 이 소설의 궁극적 주제이자 작가의 의도라는 데 동의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감정구조의 차원에서 설득하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실마리는 『사랑의 수족관』이 그려낸 세계에서 찾아질 수 있다.

신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을 배경으로 대자본가 이신국의 딸 이경희와 교토제국대학 출신의 토목기사 김광호가 연애와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사랑의 수족관』이 중국에 긍정하고 있는 세계는 바로 타락의 형태이건 혁명의 형태이건 어떤 초월의 계기도 허용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이 유지되는 일상성의 세계이다. 『사랑의 수족관』 전반부에 배치된 김광호의 형이자 사회주의자였던 것으로 짐작되는 김광준의 죽음은 이 때문에 예사로울 수 없다. 지하생활과 수감생활 끝에 김광

19) 이에 대해서는,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17~20쪽; 와다 도모미 (和田とも美), 「김남천의 취재원(取材源)에 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제23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8, 참조. 이 두 작품의 관련을 염두에 둔 『1945년 8.15』에 대한 기존 논의로는, 김한식,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서영인, 「김남천의 해방기 문학해석을 위한 시론-1945년 8.15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44집, 한국국문학언어학회, 2006 등 참조.

한편 『사랑의 수족관』에서 『1945년 8·15』로 오면서 완전히 소거된 인물은 전자의 작품에서 김광호를 남몰래 사모했던 강현순과 죽은 광준의 애인이자 가까워급인 양자 자매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자매는 만주로 떠난다. 이 두 자매가 『1945년 8.15』라는 탈식민의 서사로 재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가부장-남성을 동반하지 않은 독신여성들의 귀환서사는 매우 드물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20) 신형기, 앞의 책, 20~22쪽.

준에게 남은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그 병상을 끝까지 지켜준 까페 여급이었다. 이 사회주의자의 죽음은 식민지 조선에서 유일한 초월의 길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웅변해주는 듯하다. 김광호의 부르주아적 세계와 정신적으로 동화되지 않는 비판력은 형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는 결핍과 과잉을, 달리 말하자면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삶과 사회에의 지향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그의 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더욱이 소설의 초반에는 주인공 남녀의 관계의 지속과 안정을 해칠 것 같았던 인물들의 욕망과 거기에 입각한 행위도 결국에는 어떤 누구의 변화도 초래하지도 않는다. 『사랑의 수족관』은 사회적 계급과 규범을 초과하는 그 어떠한 정념도 허락되지 않는 세계를 제시했던 것이다.²¹⁾

『1945년 8.15』의 감정구조는 『사랑의 수족관』에서는 긍정된 일상성을 부정하는 데서 성립된다. 식민지 시기 구복(口腹)을 채우는 데 아무런

21) 김남천의 『대하』에 등장하는 재지 양반의 아버투스를 흉내하고자 한 가부장의 세계 또한 규범을 초과하는 '정열'을 허용하지 않는 세계라는 점과도 상통한다. 이 시기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남성중심적인 서사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이해령, 『1930년대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형식과 이데올로기』, 『상허학보』 제10집, 상허학회, 2003.2 물론 그러한 정념이 허락되지 않는 세계는 대단히 인공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김철은 김남천의 『낭비』에서 『사랑의 수족관』에 이르는 길을 계급이라는 대주체에서 거대한 제국의 한 기능인으로 위치시킴으로 구축한 질서와 안정의 문제로 바라보았으며, 그것은 식민지의 근원적 불안과 동요 위에 구축된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김남천과 근대초극론, 『민족문학사연구』 제18호, 민족문학사학회, 2001 참조. 한편 『사랑의 수족관』에서 풍속을 대체하고 있는 식민지 자본주의 도시 상품과 기호의 페티쉬와 기능인-‘직분’의 세계가 공히 탈역사적, 탈사회적 비전 속에 속한 것이라는 주목할 만한 주장에 대해서는 강지윤, 『‘재현’의 위기와 김남천의 리얼리즘』, 『사이/間/SAI』 제3호, 한국국제문화문화학회, 2007, 164~167쪽 참조. 『사랑의 수족관』에 나타난 경성의 풍속과 일상성에 당시 정치정세에 의한 사회의 변화를 민감히 반영하는 시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 논문으로는, 최혜림, 『『사랑의 수족관』에 나타난 ‘일상성’의 의미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제2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4.

문제 없이, 경성 거리를 네활개 치고 다닐 수 있었던 부르주아 세계의 인간군상은 전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밑바닥 삶과 대비된다. 임시정부의 요인 아버지 박일산이 환국하기도 전에 김지원과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게 된 문경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십륙칠 년간 이분(박헌영-인용자)의 생활은 감옥과 지하투쟁과 그러고는 무엇이 남습니까. 고문과 형벌과 굶주림과. 그러나 이분 한 분만이 아닙니다. 이재유라고 신문에서 떠들어서 모두 알고 있는 이 분두 공산당이 아니에요? 작년에 옥에서 죽었답니다.…(중략)…그 밖에도 공산당의 중앙에 있는 분은 죄다 지하투쟁을 허족서 땀쟁이, 쓰레기장수, 영장수로 갖은 고역을 겪어가며 8월 15일을 맞이한 분들이랍니다.(『1945년 8.15』, 285~286쪽)

한국 사회주의운동의 실제 거물들인 박헌영과 이재유를 거명하는 문경은 식민지 시기 누가 더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선택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고통의 양’²²⁾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

22) 이는 박헌호의 해방 후 사회주의로 전향한 이태준의 『해방전후』(1946)에 관한 논의에서 시사받은 것이다. 박헌호는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보다 공산당을 지지하는 작중 소설가 현의 논리가 바로 그 두 정치세력이 겪었을 고통의 양을 비교하면서 도출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박헌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 소명출판, 1999, 266~267쪽.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등장하는 작가의 분신인 현은 “제 생각엔 실상 학형에 피가 흐르고, 추위에 손발이 얼어 빠지고 한 것은 오히려 海內(조선-인용자)에서 유치장으로 감장으로 끌려 다니며 싸워 온 분들이 몇 배 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달리 해외에서 다년간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웠고 이십 칠팔 년이나 지켜온 고절(孤節)”이 있기에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지지한다는 김직원의 주장에 맞선 현의 입장표명인 것이다. 이러한 현의 입장은 왜 김남천의 『1945년 8.15』에서 임시정부 요인 박일산이 풍문과 소문으로만 떠도는 존재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즉, ‘고통의 비교’는 조선 안에 있었는가, 아년가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 내/외의 고통을 비교하는 논법은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식민지시기에 있어 조선 외부로 강직하고 결백한 애국애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공간으로 가정된 데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거두고 있던 임시정부요인의 환국을 둘러싼 귀환서사에 대한 대응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부를 가른다는 것, 이는 정치적 비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고통의 비교는 단지 사회주의 세력을 긍정하고 부르주아 세력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일상적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 모종의 죄의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문경은 ‘정치범’ 김지원의 애인이 되기에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문경과 무경 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던 박일산의 처는 “내가 현처가 되지 못해 나라 일에 골몰하신 분을 정신상으로 받들지 못한 것”(『1945년 8.15』, 47쪽)을 부끄러워한다.

이러한 언설이 좌익 작가의 경우에만 나온 것은 아니다. 식민지 시대에 민족에게는 죄가 되는 줄 알았으나 제 식솔을 굶길 수 없어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1948)²³과 같은 작품은 식민기억의 기율로 작용한 ‘고통의 양’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민족의 죄인』에서 작중 채만식의 분신인 ‘나’가 문필활동으로 친일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첫 번째 계기로 제시한 것은 독서회 사건에 연루되어 겪게 된 유치장 경험, 그리고 가족의 생계곤란이었다. “도야지 우리같은 유치장에서 몇 년 썩게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전율을 느낀” ‘나’가 유치장에서 무혐의로 풀려나오게 된 계기는 일본 경찰이 ‘나’를 “조선문인협회”에 참석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한 장의 엽서 때문이었다. “대일협력이라는 주권(株券)의 이윤(利潤)이 어떠한다는 것을 실지로 배운 것이 이 개성사건(독서회 사건)이었다.” “용렬하고 나약한 지아버의 부류”인 ‘나’에게는 이것이 살 방도였다고 고백한다. 시골로 소개하여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보려 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창녀 못지 않은 매문(賣文)질”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야기한다. 채만

23) 채만식, 『민족의 죄인』, 『백민』 16/17, 1948.10/1949.1.

식이 대일협력의 이유로 제시한 식민지 경찰의 비인간적 모욕, 공포를 느낀 유치장 경험과 가족의 생계위협은 감방을 제집 드나들 듯하고, 아예 가족과 가정을 버렸다는 전설적 혁명가들의 레파토리의 모티프를 의식하되, 그것을 정확하게 뒤집은 이야기인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서사는 해방 후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나’는 해방 전 이미 없앨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작가’인 것이다. 저항을 하며 죽음을 무릅쓰기에는, 또 가족의 생계를 외면하기에는 자신은 “용렬하고 나약한 지아비의 부류”였을 뿐이라고 말이다. 앞에서 언급한 “그랬었더라면”, “그래야 했을텐데”의 가정법과거완료의 서사는 “그럴 수밖에”라는 서사와 지반을 같이 하는 쌍생아라고 할 수 있다. 주의깊게 볼 것은 용기 없고 범속한 남자로 지아비 노릇을 하기에 급급해야 했던 자신의 뒤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은 처자식이라는 사실이다. 『민족의 죄인』에서 대일협력의 낙인이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데 낙담한 ‘나’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자고 아내에게 말하지만, 아내는 자녀들의 학교교육을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한다. 이왕 민족의 죄인인 바 그 죄가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닌 이상, 자식들을 잘 키워서 민족의 다음 세대에게나 속죄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냐는 그럴 듯한 변명의 논리까지 제공한 아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자식의 출세였다. 더욱이 대일협력을 위한 글쓰기 행위는 “창녀 못지 않은 매문질”로 규정되고 있다. 생계의 책임자로서 가부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도리어 탈식민의 상황에서는 창녀로까지 비유될 만한 남성성의 훼손으로 맥락화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해방 후에 등단한 유희의 『진눈깨비』(1947)는 지식인의 대일협력 행위에 대한 비판을 생활과 직업에 각인된 일탈적인 섹슈얼리티의 표상을 통해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아내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안 후 집을 뛰쳐나와 방황하던 중에 만난 정님이란 여자와 함께 해방 직후 서울에 올라온 석규는 한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

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런데 그가 번역하는 책이란 빨간색의 이상야릇한 표지에 제목이 “성교육(性教育)”인 일본어 음란서적 따위였다. 이 행위는 지방신문의 기사를 하면서 글을 써서 “그놈들 압잡이” 노릇을 한 해방 전 자신의 친일행위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어, 석규에게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오십년이구 십년이구 속죄의 날이 끝날 때까지, 김숙히 파묻혀 있어야만 될 몸인줄 알면서도 막상 **정님이라는 무거운 짐**이 늘 등을 두들기네야 어찌할 수가 없었다.”²⁴⁾(강조-인용자) 식민지 시기 친일적 글쓰기의 유비(analogy)인 일본어 음란서적 번역 행위와 혼외 관계의 여성 정님. 이렇듯, 식민지 시기의 대일협력은 한 남성 지식인을 안팎에서 옴아매고 있는 일탈적 섹슈얼리티로 표상되고 있다. 따라서 석규가 자식도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석규에게 애원하는 정님의 ‘불임’은 석규만이 알고 있는,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할 역사의 업보인 것이다.

대일협력이 남성성의 상실 내지 훼손으로 은유화되었다면, 역으로 남성성 회복은 협력의 기억을 삭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을 지워낸 자리에 아예 ‘저항’을 새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었겠지만, 이것이 매끈하게 성취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기 식민기억의 텍스트란 식민지 경험의 재현이나 반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직접화되기 힘든 전혀 다른 진술들을 포함하고 있는 복화술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8. 15』를 당시 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입장에 선 김지원이 미래에 무엇이어서 할 것인가에 관한 서사이기 전에 혁명가 장사우가 걸었던 길을 되짚어 걸어가는 가정법과거완료의 서사로 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저항했었다라면이라는 가정법과거완료의 서사란, 저항의 반대 편인 협력의 기억 작업에 의

24) 유희, 「진눈개비」, 『백민』 7, 1947.3, 98쪽.

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일전쟁 이후 지식인들이 협력의 길을 걸었던 기억은 ‘적어도’ 해방 직후 만큼은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한국인들에게 식민지 상태가 소여적이고도 일상적인 삶의 조건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식민기억의 서사에 저항을 새겨넣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었다. 식민기억의 메타포로 쓰인 남녀관계란 그것이 고도로 상징화된 메타포로 기능할 때조차도 일상적 삶이라는 토대 없이는 부식될 수 없는 것이었다.

3. 협력과 일상 사이의 식민기억과 여성 표상

정비석의 『고원』(1946)에서 남녀관계의 메타포가 제시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는 해방기 식민기억의 구성에서 삭제할 수 없었던 일상적 삶의 범속함에 남성성 회복을 덧대어쓰는 일, 다른 말로 봉합시키는 일이 얼마나 간절하면서도 곤혹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거의 논의된 적이 없던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3.1운동으로 수감되었다가 그해 늦가을에 석방되어 동지이던 오현우의 집에 기거하게 된다. 출옥 때 오현우와 그의 처 채옥과 함께 그를 마중 나온 오현우의 사촌 여동생 오영주에게 ‘나’는 “정신으로 느껴지는 황홀함”을 느껴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선정적인 여자” 채옥은 ‘나’에게 구애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자기집에서 떠나라고 요구한다. 고향 집으로 돌아가 조흔한 아내와 하룻밤을 보낸 후, 신흥무관학교의 교원으로 부임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기차역에서 ‘나’의 만주행을 알고 있던 채옥을 만난다. 채옥을 통해 오현우가 이미 조국을 배반하고 일본의 압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그런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채옥을 ‘나’는 순간의 동정심으로 만주에 데려간다.

‘나’는 신흥무관학교에 부임하여 교편을 잡고 채옥은 그곳 교관 숙소의 식모가 되어 살지만, 1920년 일제의 서간도대토벌사건으로 인해 신흥무관학교도 해산되어 그 두 남녀는 만주 등지를 떠돌며 생존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간신히 ‘나’가 만주의 어느 농장감독이 되어 정착한다. 이 평화는 ‘나’에게 채옥을 사랑하지 않음을 일깨워주고, 영주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럼에도 채옥에 대한 의무감으로 충실한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채옥의 임종까지 지킨다. ‘나’는 채옥의 유언대로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만주를 떠날 차비를 한다. 그 사이 만주에 와서 교편을 잡고 있던 영주와 재회하지만 온갖 번민 끝에 성적 욕망을 억누르고 서로에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남는다.

정비석은 작가후기에서 “그릇된 애정의 길을 밟은 한 남성이 최후까지 의를 지켜나가는 한편으로, 참된 사랑을 열렬히 추구하여 고행자적인 고뇌에 몸을 태우면서도, 인간본래의 약점인 육신적 욕구를 극복하고 한층 높은 단계로 지양하려는 정신의 절규와 그 사랑에 호응하여 一 意 연모의 정에 불타면서도 끝까지 신의 딸이 되려는 한 여성의, 자살에 가까운 몸부림, 그 두 사람의 깨끗한 마음과 착한 양심과 거짓 없는 신앙을 성실히 그려보려는 것이 이 작품의 의도”²⁵⁾라고 밝히고 있다. 작가의 말처럼, 이 소설은 낭만적 사랑에 내재화된 정신/육체의 이분법의 각 항에 여성인물을 할당하고, 중국에는 정신에서 궁극적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식의 플롯을 사용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의 한국소설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플롯을 이어받고 있는 것 같지만, ‘조선’과 만주라는 장소가 두 여성과 ‘나’가 관계맺는 방식과 다선적으로 교차되면서 의미화되는 양상은 식민기억의 정치학과 젠더를 놀라우리만치 총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다. 이에 소설의 중심무대인 만주를 재구조화하는 방식과 여성

25) 정비석, 『고원』, 백민문화사, 1946, 239쪽. 앞으로는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괄호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들과의 관계를 의미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나’가 출옥하던 때인 3.1운동이 있던 해인 1919년 가을부터 광주학생사건(1929.11)이 있는 지 몇 달 후인 1930년 무렵까지²⁶⁾, 즉 1931년 만주사변 이전까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15년 전쟁기(만주사변에서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와 관련하여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과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거점이던 만주가 언급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비석 자신 또한 1939년 『三代』라는 단편소설을 통해 만주를 일본의 승리를 예감케 하는 전쟁의 기운을 맞볼 수 있는 공간이자 이를 통해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남성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²⁷⁾ 이렇듯 중일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는 만주의 표상이 한국문학에 특히나 넘쳐나던 시기이다. 지식인의 눈으로 조망된 만주란 조선이라는 현실적 구속을 벗어나 도저한 타락도 가능하고, 완벽한 신생도 가능한 상상적이고 이데아적 공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⁸⁾ 그런데 『고원』은 만주를 1920년 신흥무관학교²⁹⁾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로, 그 다음은 농장감독이 되어 정착한 ‘나’와 채옥의 가정으로 축소된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세력을 빼놓고서는 신흥무관학교 폐쇄 이후의 만주를 항일무장세력의 근거지로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만주의 時空은 정비

26) 소설의 대단원의 시간적 배경은 채옥이 죽은 후에 만주에 찾아온 오현우가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광주학생사건 소식을 전해준 것에서 유추한 것이다.

27) 이혜령, 『남성성 회복의 서사와 파시즘』, 앞의 책, 2007 참조.

28) 이 시기 문학작품의 만주표상에 대한 시각전환을 가져온 김철의 『몰락하는 신생』(『상허학보』 제9집, 상허학회, 2002.9)이 제기된 이래로 논쟁적이고도 치밀해진 많은 논의들이 제출되었다.

29) 3.1운동 이후 신흥무관학교에 관해서는 서중석, 『후기 新興武官學校』, 『역사학보』 제176집, 역사학회, 2001 참조.

석도 협력문인으로서 만주개척지 여행을 한 바 있듯이 1931년 이후, 그보다 중일전쟁 이후의 만주란, 해방 이후 지식인에게 있어서는 ‘만지면 덧나는 상처’였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방기 텍스트인 『고원』이 식민지 조선과 만주와의 관련성을 1920년 신흥무관학교의 폐쇄까지로 제한하여, 이후 두 지역 사이의 역사적 맥락화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명백해보인다. 식민지 말기 한국 문인들에게 ‘시국 동참의 시험대’³⁰⁾로 간주되었던 만주국행의 경험과 그 언설을 망각의 강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소시민적인 삶의 공간으로서의 만주가 식민지 조선과 아무런 관련 없이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만주란 “고국에서의 의식의 분열과 갈등을 피해 도피한 지식인들의 자족적인 공간”³¹⁾인 것이며 이는 1930년대 중후반 문학적 표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946년 정비석의 『고원』은 그 도피의 기원적인 시간을 앞당겨 제시한다. 즉, 지식인의 만주로의 도피가 이루어지던 기원적 시간을 3.1운동의 경험에 의해 고양된 정치적 열기에 힘입어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망명하는 것이 청년의 기백으로 용인되었던 3.1운동 직후로 앞당긴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만주행을 ‘도피’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맥락화하고 있는 자는 오현우라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나’가 만주로 떠나기도 전에 만주행을 ‘도피’라고 지적한 오현우는 누구인가. 3.1운동에 가담하여 수감된 옥중에서 고등경찰에 회유당하여 일찌감치 협력의 길을 걸으면서 조선의 독립가능성을 부정해버린 자이다.

솔직한 고백이네. 자네는 섭섭하게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두고 보게. 아

30)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제86집, 한국어문학회, 2004.12, 345쪽 참조.

31) 위의 논문, 344쪽.

모리 우리가 아름다운 이상론을 떠들어 본뎃자 별수 없을걸세. 현실은 현실대로 제 코-스를 밟아 나갈 거니까... 그것도 그렇거니와, 무슨 일을 하던간에 조선을 떠난다는 것은 일종의 도피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네. 소위 망명이니 뭐니하고 흔히들 국외로 나가지만 참으로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보도 조선땅을 떠날 수 없을 걸세! 조선이라는 토대를 떠나서 무슨 일을 하겠나?(『고원』, 19쪽)

만약 내가 조선안에서 살았다면 나는 현우 이상으로 비겁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만주리는 특수시대의 힘을 빌어 간신히 양심만을 유지해 나가지만, 그 양심이 조국 조선을 위하여 하등의 프러스도 첨가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내가 현우를 내무래는 것은 나 자신이 그의 재주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약자로서의 질투였던지도 모를 일이었다. 선망심은 때로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수가 많다. 적과 정면으로 부닥쳐 보기전에 미리부터 항복하는 군사가 없듯이 내가 남을 비방하는 것도 결국 만주리는 안전지대에서 생활하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만주 사시면, 조선안에서처럼 시달리지 않아서 좋으시겠습니다.” (『고원』, 118쪽)

3.1운동 직후에 이루어진 오현우의 발언은 중일전쟁으로 격화된, 일본이 주도한 정세를 윤리적 판단을 중지하고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른바 ‘사실수리론’(事實受理論, 현실추수론)을 20여년 앞당겨 재연한다. 1930년대 말 사실수리론란, 식민지 지식인들이 한국이 식민지임을 투명한 언어로 기정사실화한 언설이었다. 이를 고려하자면, 전향과 협력이라는 시대적 풍향을 한국인들의 역동적인 정치적 모색이 존재했던 3.1운동 직후로까지 소급시켜서 구성된 식민기억의 식민지상은 무엇이었는지는 짐작가능하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한국인의 삶이란 일본의 식민지란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것이다. 1930년대 말의

언설을 20년 전의 것인양, 즉 그것으로 식민지기의 전체상을 재구축하여 얻고자 한 효과는, 식민지였음을 실정화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도 삶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지는 것이다. 이것이 만주행이 곧 도피라는 언설이 조선을 떠나지 않은 오현우의 입에서 나온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오현우의 입장에 대한 동의 내지 승복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오현우의 입장에서 호응하면서 묻고자 했던, 그러나 차마 언표화될 수 없었던 질문은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식민지라는 삶의 조건을 비일상적이고 일탈적인 상황, 즉 삶이 불가능한 상황으로만 간주한다쪽, 거기서의 삶이란 죄란 말인가.” 이는 김남천이 『사랑의 수족관』에서 사회주의자의 죽음으로 형상화했던 저항과 투쟁이 불가능해진 채 견고한 일상성이 지배하는 것으로 그려놓은 신체제기를 『1945년 8.15』에 와서는 지하생활의 공산주의자와 학병반대 투쟁에 나선 주인공을 통해 저항과 투쟁이 여전히 모색되던 시대로 전환시켜 형상화한 것과는 거울을 마주한 듯한 짝을 이룬다. 이러한 두 소설의 양상은 남한에서 전쟁과 분단 이후 식민기억의 한 축인 억압과 수탈은 민족말살기라는 이름으로 표상된 ‘전시동원체제기’에 집중되고,³²⁾ 다른 한 축인 저항과 투쟁의 기억은 3.1운동의 기념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만주사변 이전의 시기에 집중되게 된 경향의 원인을 역설적인 형태로 짐작하게 만든다.

다시 『고원』의 서사로 돌아와, 만주로 떠난 지 10년 만에 ‘나’는 하룻밤 사이로 감상에 끌려 서울에 갔다가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차칸에서 만난 리택규라는 후배를 통해 오현우가 “평양서 일류 가는 부호의 사위 가 되어 가지구 광산을 경영하는 한편, 관선 부회의원이랍니다. 이를테면 관계나 실업계를 막론하고 타인의 추종을 허락치 않는

32) 이러한 편중에 대한 지적은 권명아, 「기념/공유기억 연구 방법론과 탈민족주의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전후 ‘국민화’와 공유기억을 둘러싼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6집, 상허학회, 2006.2.

유력자이요 권세가”(115쪽)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에 ‘나’는 오현우가 십년 전 채옥에게 ‘나’의 석방운동을 독려한 것도 이러한 출세가도를 위한 치밀한 책략이었음을 직감하고 “출세란 그렇게나 사람의 양심을 어둡게 하는 것일까?”라고 냉소한다. 그러나 오현우의 출세가 역으로 보증해준 ‘나’의 도덕적 우월성 내지 양심의 결백성은 무구한 것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두 번째 인용문에 제시되어 있다. ‘나’의 도덕적 우월성은 한낱 “만주라는 안전지대”, “만주라는 특수지대”라는 조건부에 기대 것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렇게 얻게 된 양심의 만족이란 오현우의 출세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능력에 대한 자신의 선망을 은폐하기 위한 위선 일지도 모른다는 ‘나’의 자괴감으로 귀착된다.

그런데 친일파 오현우가 계속 살던 곳으로서 조선과 대비해보자면 만주란 그 지리적 경계와 정치적 성격이 뚜렷하게 조선과는 구분되는 장소이지만, 이 작품에서 만주는 반드시 조선이 아닌 곳은 아니다. 이는 오현우에 의해서 도피적 장소로 비난되었지만, 『고원』에서의 만주가 직장과 아내가 있는 집이 있는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제시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1930년대 중후반 최명익이나 이효석 등의 작품에서 만주는 아편과 도박이 판치는, 왕년의 사회주의자가 숨어들기 쉬운, 지식인들의 도피적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이들은 당시에 대중적으로 유포된 오리엔탈리즘이 뒤섞인 만주의 이미지를 차용했던 것이다. 반면 『고원』에서 만주는 그러한 통념적 이미지의 차용 없이 오로지 ‘나’와 채옥의 가정으로 축소되어 있다. ‘도피’를 단지 ‘도피’가 아닌 것으로 맥락화하는 데 이 소설의 주요 플롯인 ‘나’와 두 여성과의 관계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밤낮으로 접촉하는 사람들끼리의 사랑 그것은 목전의 생활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부침(浮沈)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부침은 항상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는 믿음과,

멀리 헤어져 있어도 변함 없는 사랑은 슬픔에 가까운 결백이요, 물들지 않는 순수다.(『고원』, 166쪽)

두 여성과의 관계는 생활-채옥-육체-(만주)와 조국애-영주-정신-(조선)으로 이원화된 분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나’에게 동시에 구현된 삶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 둘다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구도자의 삶으로 의미화된다. 용정(龍井)에서 기차로 다섯시간을 더 간 곳에 있는 만주 벽촌에서 농장감독으로 정착한 ‘나’가 채옥과 꾸린 결혼기에 단란한 가정생활은 그 신흥무관학교에서의, 그리고 만주를 유랑하다시피 하며 살아온 육신이 극도로 고단했던 삶에 비해 훨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진술된다. 또한 그 고통은 자신은 채옥이 아닌 영주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배가되는 것이다. ‘헤어져 있어도 변함없는 사랑’이 ‘조국을 사랑하는 믿음’과 조용하고 있듯이, ‘접촉하는 사람들끼리의 사랑’ 또한 조선과의 또 다른 관계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채옥은 주어진 삶의 조건으로서의 또다른 조선의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채옥은 각각 나날의 일상적 삶의 터전으로서의 조선을, 영주는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이데아로서의 조선을 표상한다. 이 둘을 동시에 구현하는 삶이란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는가?

설사 나날의 일상에 몰두하여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데아로서의 조선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는 것, 이데아로서의 조선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적’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였던 오현우의 삶조차 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채옥의 죽음도 모른 채 십여 년만에, ‘나’를 찾아온 그는 몇 달 전의 일인 광주학생사건도 모르고 있는 ‘나’를 질책하며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한다.³³⁾ “만

33) 오현우의 발언은 이 소설이 발표되었던 1946년 당시 정치세력에 대한 작가 정비석

주산업시찰단이라는 어사여행을 떠난 현우군의 입에서 그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약간 기괴한 감정이 느껴졌으나, 그러나 옛날의 투사였던 현우군이 비록 어사여행을 할망정, **속살까지 썩지 않았음**에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고원』, 209쪽, 강조-인용자)

요컨대, 이 작품이 익숙한 만주의 지방색과 심상지리를 거의 드러내지 않은 채 그곳을 오로지 ‘나’와 ‘채옥’의 가정이 있는 장소로 국한시켰는 지의 이유는 여기서 뚜렷해진다. 만주의 역사적 맥락화를 중지시키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두 여성과의 관계를 두 개의 조선으로 표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옥이 임종 전에 ‘나’에게 조선으로 돌아가달라는 유언³⁴을 남긴 것, 그리고 만주로 온 영주와 결정적인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의 설정은 두 여성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적 표상의 지위를 바꾸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두 표상의 오버랩을 통한 효과를 위해서이다. 그 효과는 바로 여성이라는 매개적 표상 없이도 존재가 뚜렷한 ‘조선’을 강하게 환기시는 데 있다. 그 두 여성들이 중국에 서사에서 점차 사라지는(fading out) 대가를 통해서, 조선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돌아가야 할 조국이 된다. 조선에는 조선만이 있게 된 것이다. 채옥은 죽었으며, “드디어 영주는 내게서 떠나버렸다. 이젠 영주는 영영 나를 찾아

의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현우는 “국외에 있어도 항상 세계 대세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별문제겠지. 가령 **상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혁명분자들과 함께 추축을 한다면 그런 단체에 가입해 있다는, 그 단순한 그 한가지 뿐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정신적 영향이 클 것을 부인할 수 없고…”(『고원』, 210쪽, 강조-인용자)이라고 말한다. 식민지 시기 국외활동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의 ‘상해나 미국 같은 데’란 임시정부와 관련된 곳이다.

34) 채옥은 자신이 죽거든 조선으로 돌아가라면서 다음과 같다. “사관학교가 폐쇄된 후에 당신은 조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으세요…여기(만주-인용자)와 있으면 일본사람들의 핍박을 직접 받지 않는 편이기는 있지만 그대신 그만치 현실에 대해서도 어둡고, 또 반격심도 덜 생길 거 아니예요? 만약 당신이 조선땅에 사셨다면 벌써 감옥에 몇 차례 들어 갔을는지 모르잖아요? 결국 조선사람은 조선안에 살아야 해요. 만주에 와서 조선을 생각하는 건 공상이예요. 망상이예요.”(『고원』, 199쪽)

오지 않을 것이다.”

4. 탈식민의 남성성 회복, 그 곤혹에 대하여

『1945년 8.15』에서 다소 에로틱한 장면으로 회상되는 해방 전 두 남녀의 서사는 해방 후에는 더이상 에로틱한 방면으로는 발전하지도 서술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설정은 연애를 마땅히 유예시킬 수 있는 더 고상한,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대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원에 대한 문경의 부끄러움이 바로 그곳 에로틱한 욕망에서 기원했기 때문이다. 지원이 문경을 포옹했던 그 밤의 기억은 문경의 것이었다. 문경은 그날 밤의 포옹이 학병반대투쟁을 앞둔 김지원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됨으로써, 그 기억 속에 잔재되어 있던 자신의 에로틱한 욕망에 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문경의 프롤레타리아적 성장의 길이 에로틱한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김 지원을 포기하고 대신 그를 스승 내지 전범으로 삼는 것과 동궐을 이루는데, 이는 과거를 다시 쓰는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에서 연애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했느냐고 묻는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고원』에서 남녀관계의 양상은 영혼과 육체가 일치된 사랑의 불가능성과 ‘불임’으로 특징지어진다. 해방기 한국소설의 식민기억에 산포된 연애불가능성이나 불임의 메타포는 과거를 향해서는 식민지민의 위협당한 남성성의 증언이자, 탈식민의 현재적 시점에서는 과거의 대일협력 등과 같은 과오에 대한 도덕적 속죄나 결백의 상징이었다. 협력 혹은 저항하지 않음의 정상참작으로 ‘일상적 삶’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행복’이나 ‘희망’ 등을 덧대어 쓸 수 없었기에 남녀관계의 양상은 고통이거나 불행의 의미로 채색되어야 했으며, 그 표상이 연애불가능성과 불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연애불가능성과 불임은 식민기억에 내재

된 탈식민의 성적, 젠더적 메타포가 어떤 형태로 제시될지 보여준다. 정비석의 『고원』이 식민지 말기에서야 구체적인 언설로 드러나는 지식인들의 멘탈리티를 3.1운동직후로까지 소급시키는 문법에 의존하고 있다면, 고국에 돌아간다는 것만으로 민족됨을 증언하는 해방기의 귀환서사 또한 더 앞당겨 재연하고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해방기 귀환서사의 젠더는 여기서 한번 더 음미될 만하다. 가장 일반적인 귀환의 단위는 가부장 중심의 한 가족단위이거나, 독신 남성의 귀환이다. 실제의 상황과도 다를지도 모르고 또 과문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해방기 소설에서 혼외의 관계에 있는 여성이나 정상적인 부부였다고 하더라도 이민족의 여성과 귀환하는 남성을 다룬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섹슈얼리티의 규범에 있어서 정상성의 회복이 해방의 또 다른 표상이자 남성성의 회복이었던 것이다. 정비석이 작가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앞으로 현오권씨(주인공 ‘나’-인용자)의 본체를 주인공으로 하는 『아내의 수기』라는 것을 써서 『고원』과 아울러 부부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만, 아마 그것은 아득한 장래의 일일 것 같습니다.”(『고원』, 240쪽) 여기서 유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식민지 근대성의 표상이었던 ‘신여성’이 겪어야 하던 식민 이후의 운명이다. 『고원』에서 신여성인 채옥과 영주 모두가 사라졌어야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표상이 내재한 근원적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표상자체가 지식인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산출되며, 그러는 한 거기에 잠재되어 있을 식민지 지식인 남성의 죄를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오권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물음은 소설의 뒷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독자의 우문만은 아니다. 소설의 서장은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서장’은 “내가 이제 아래에 소개하려는 『故苑』이라는 한편의 이야기는 玄五權氏라는 분의 수기인 것을 미리 말하여 둔다. 距今 七年 전에 나는 북

간도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대학노트에 쓰여진 이 手記를 손에 넣게 되었다”고 시작한다. 읽어보니 흥미로워 조선에 갖고 돌아왔으나 이 수기의 주인인 현오권이란 사람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수기의 내용이 실제의 사실인지 혹은 가공적인 이야기인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다,는 말도 나온다. ‘故菴’이란 현오권 씨가 적어놓은 제목이며 “그럼,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겠거니와, 이하에 나오는 「나」라는 이가 현오권씨임은 말할 것도 없다”는 문장이 서장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 소설은 이와 같은 절묘한 장치를 개입시켜 내가 앞에서 언급한 식민지 텍스트와 해방기 텍스트의 위상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했다. 즉 식민지기에 쓰여졌다고 가정되어 있지만 그때는 쓰여질 수 없었던, 쓰지 않았던. 따라서 해방기에 쓰여진 식민지 텍스트란 가정법과거완료의 소원성취이다. 식민지 시대에도 신흥무관학교의 폐쇄와 광주학생사건, 조선언어말살정책 등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더라면. 만주사변에서 1945년 8.15 해방 전까지를 도려낼 수 있다면. 해방기의 식민지 텍스트, 식민지기의 해방기 텍스트는 불가해한 욕망이라는 사실을 이 소설의 서장은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서장을 쓴 ‘나’는 누구인가? 정비석인가, 아니면 액자소설의 액자안 이야기의 제공자인 액자 밖의 화자인가? 지금부터 7년 전이라면 ‘지금’이란 어느 시점인가, 해방 전인가 후인가. 그 언제이든간에 왜 7년이나 묵혀두고 있었는가? 대학노트에 쓰여진 手記의 내용이 실재인지 가공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면, 현오권이란, 그리고 수기안의 ‘나’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정비석의 『고원』에서 중국적으로 페이드 아웃되어 있는 것은 두 여성만이 아니라 ‘나’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해방기 국민 국가의 국민형성 기획과 무관하지 않았던 남성성의 복원이 그리 쉽지 않은 앓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방기 좌우익 대립, 미소분할점령의 정치적 혼란 때문이라기보다 ‘식민지였음’ ‘식민지인으로 살았음’이라는 과거가 등덜미를 강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행방을 더 이상 쓸 수 없었던 한계선상에 놓인 기억의 시간에 놓여있던 것은 협력의 기억이었다. 무엇을 ‘더’ 쓸 수 있었겠는가. 작가의 말처럼 차라리 신학문이다 독립운동이다 그도 아니면 신여성과의 연애다 하여 기출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구여성인 본처의 이야기를 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나왔을 것이다. 또 하나의 서술가능성은 유희의 『진눈깨비』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협력을 환기시키는 일본어로 쓰인 음란서적을 회사에서 들고나온 석규는 길거리 풍경에서 곧 설날이 돌아오고 있음을 깨닫고 트더진 구두나 고철 샘으로 길가의 구두쟁이에게 간다. 그런데 그 구두쟁이는 바로 자신과 같이 친일적인 글을 쓰던 학상이었다. 아예 붓을 꺾었냐는 질문에 학상은 “꺾다니…왜. 쓰기가 쓰지…이렇게 구두창위애다 남모를 글을 허구헌날 쓰고 있지 않나베. 하하하”, “…그야 글쓰는 것도 좋지, 허지만 자네나 내가 쓰던 그따위 글은 이 세상에 없어도 돼. 죄를 짓지, 죄래두 이만저만한 죄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오고가는 사람한테 업드려 절을 해도 지워지지 않을 죄일걸세”³⁵⁾ 라고 말한다. 해방 후 친일문인의 자기 반성적인 절필이 세상의 모든 발을 보고 가장 낮은 자세로 절을 하고 있는 자의 초상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환기하는 바는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8.15』의 김지원과 박문경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의 변신은 정치적 비전에 의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식민지 시기에 소시민적 일상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아예 가장 낮은 자의 초상으로 식민기억을 구성하는 것. 그것은 협력의 기억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근근히라도 먹고사는 것만이 지상과 제였던 ‘조선민중’보다 더 무구한 존재는 없었던 것이다.

35) 유희, 앞의 책, 99~100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8.1~1940.3.3
 _____, 『1945년 8.15』(『자유신문』, 1945.10.15~1946.6.28) 작가들, 2007
 오기영, 『사슬이 풀린 뒤』(성각사, 1948.9), 성균관대 출판부, 2003
 유희, 『진눈깨비』, 『백민』7, 1947.3
 정비석, 『고원』, 백민문화사, 1946
 채만식, 『민족의 죄인』, 『백민』16,17, 1948.10, 1949.1
 파냐 이사악코브나 사브쉬나, 김명호 옮김, 『1945년 남한에서』, 한울, 1996

2. 단행본

- 박헌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 소명출판, 1999.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이중연, 『책, 사슬에서 풀리다-해방기 책의 문화사』, 혜안, 2005.
 이혜령, 『이태준 『문장강화』의 해방전/후』, 『한국소설과 글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3. 논문

- 강지윤, 『‘재현’의 위기와 김남천의 리얼리즘』, 『사이/間/SAI』 제3호, 한국국
 제문학문화학회, 2007.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과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
 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12.
 _____, 『여성·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제10집, 상허학회,
 2003.2.
 _____, 『기념/공유기억 연구 방법론과 탈민족주의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전후 ‘국민화’와 공유기억을 둘러싼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상
 허학보』 제16집, 상허학회, 2006.2.
 김 철, 『몰락하는 신생』, 『상허학보』 제9집, 상허학회, 2002.9.
 _____,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김남천과 근대초

- 극론], 『민족문학사연구』 제18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제86집, 한국어문학회, 2004.12.
- 오테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한국문학연구』 제32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 와다 도모미(和田とも美), 『김남천의 취재원(取材源)에 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제23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8.
- 정재석,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 “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40집, 한국비교문학회, 2006.
- 최지현, 『학병(學兵)의 기억과 국가 1940년대 학병의 좌담회와 수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2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 최혜림, 『『사랑의 수족관』에 나타난 ‘일상성’의 의미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제2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4.
- 한기형, 『식민지 검열장의 성격과 근대 텍스트』, 『민족문학사연구』 제34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8.
- , 『해방 직후의 수기문학』, 『상허학보』 제9집, 상허문학회, 2002.9.
- 황호덕, 『점령과 식민, 『백범일지』로 본 동아시아의 근대-내부와 외부, 비교식민지(문학) 연구의 가능성』, 『비교문학』 제43집, 한국비교문학회, 2007.10.

Abstract

Colonial Memory of Korean Novels and Gender in the Liberation Period

Lee, Hye-ryoung

This article is about a certain way of narrating colonial memory in texts including Korean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of Korea. In this period, colonial memories began to be described which had been impossible to be described itself in the colonial period. Colonial experiences of Korean male who were put in prison or drafted into Japanese military or work in the wartime by Japan, appeared in novels. Among them, were of course revolutionists or socialists who couldn't help going unerground and political exiles who jonined in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broad. In shorts, Korean male suffering from Japanese rule appeared as main roles of narratives on colonial memory, to the extent that Liberation meant these men' return to home or farther land and that narrative of men's sufferings was prior to the women's. Here, colonial memory as narrative of men's suffering provided dubious and inevitable affirmation of everydayness under colonial situation, as it could be said that they were compelled to choose pro-Japanese act for living of their wife and children. But it was difficult to recover musculinity because of the very memory of pro-Japanese.

Key words : colonial memory, colonial everydayness, narrative of men's suffering, narrative of women's suffering, pro-Japanese, Kim Nam-cheon, Jeong Bi-seok

■ 본 논문은 4월 15일에 접수되어 5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